

IMFdirect 블로그로부터:

세계적인 정책 수립 과정에서 강화되고 있는 아시아의 발언권과 지도력

작성: [Naoyuki Shinohara](#)

아시아의 발언권이 강화되고 있고 IMF 와 전세계가 경청하고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 이틀 동안 한국 정부와 이 기금이 [high-level international conference](#)를 공동으로 주최하는 한국 대전에서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Asia 21: Leading the Way Forward](#)이라는 이름의 이 컨퍼런스는 아시아의 리더십을 보여줄 적절한 시기에 개최됩니다. [topics to be discussed and participants expected for the event](#)은 이 지역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의 범위 및 깊이를 명확하게 보여줄 것입니다.

경제적, 분석적, 정책적 성공을 광범위하게 인정 받고 있는 아시아는 이제 경제 및 금융 정책에 대한 세계적인 논의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경제의 동력

아시아는 이미 경제의 동력으로 성장했고 세계적인 중요성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측면의 수치들이 이를 입증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현재 세계 인구의 절반 이상, 그리고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25 퍼센트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20년 후에는 아시아가 세계 GDP의 40 퍼센트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것은 미국과 유럽을 합친 것보다 더 높은 비율입니다.

아시아의 개방성은 이 지역의 성공의 가장 큰 요인이나, 또한 최근의 세계 경제 위기와 관련하여 파급 효과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10년 간의 광범위한 개혁과 경제 정책의 건전한 관리는 이 지역이 비교적 신속하게 경제를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Our latest outlook](#)에 의하면, 아시아는 금년에 약 7%퍼센트의 성장을 달성할 것으로 예측되고(지난 4월의 예측보다 약 1/2퍼센트 포인트 증가), 10%퍼센트에 달하는 중국의 성장이 이를 주도할 것입니다.

지역적 협력의 이점

그러나, 아시아가 최근의 세계 금융 위기로부터 신속하게 회복한 것을 볼 때 지역적 협력과 제도의 확립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재와 같은 세계 경제에서는 어떤 국가나 지역도 고립될 수는 없으므로, 정책입안자들은 위기에 대한 취약성을 줄이고 지속 가능한 회복을 달성하기 위해 상호 협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시아의 접근방법 중 2 가지 측면이 공감을 얻고 있습니다.

- 첫째, 아시아에서 역내 경제 감시와 분석이 강화됨으로써, 국가들과 잠재적 충격 사이에 연관성에 대한 깊은 이해를 제공합니다.
- 둘째, 아시아의 지역의 금융 메커니즘(지난 3 월에 치앙마이 이니셔티브가 강화된 것 포함)이 금융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역외 자금 이용 협정(미국 연방준비은행의 스왑 라인 제도와 같은)과 더불어 정책 공조가 효과적인 세계 금융 안전망을 형성하는 데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증명합니다.

국제적인 참여와 중요성

아시아의 경제력, 정책적인 교훈, 그리고 경제력을 강화하기 위한 지역적 협력은 이 지역에 모범을 보임으로써 경제를 주도하는 뛰어난 이점을 제공합니다. 그 결과, 이 지역의 오랜 전통인 협력적 다자간 논의에 참여함으로써 세계적인 중요성을 성공적으로 확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G-20 에서의 아시아의 위상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G-20 members](#) 회원국 중 6 개가 아시아 국가들입니다(한국, 호주,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뿐만 아니라, 한국은 금년에 G-20 의장국이 되었고, 이것은 세계 금융 위기 이후, 그리고 [Barry Eichengreen describes](#)가 언급했듯이, G-20 이 “세계 경제의 운영 기구”로 부상했을 때 신흥국이 의장국이 된 최초의 경우입니다. [G-20 mutual assessment process \(MAP\)](#)는 아시아 스타일의 협력적 경제 분석을 제공합니다.

또한 아시아는 금융안정성위원회와 바젤 위원회 같은 주요 표준 제정 기구에 대한 참여를 통해서 금융 개혁 과정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아는 세계 금융 위기를 겪는 동안 금융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몇몇 아시아 국가들은 IMF의 [New Arrangements to Borrow](#)를 확대하기로 약속함으로써, 이 기금의 대출 능력을 지원할 것에 동의했습니다 [to bolster the Fund's lending capacity](#) 동의했습니다. 일본이 가장 먼저 [providing \\$100 million](#)했고, 그 뒤를 이어 한국, 중국, 인도, 싱가포르가 신속하게 동참했습니다.

과거의 비전을 새로이 적용

이러한 협력에 대한 모든 논의와 관련하여, 이 기금의 설립자들이 제시한 비전은 매우 인상적입니다. [Articles of Agreement](#)에는 이 기금의 목적이 “국제 통화 문제에 대한 협의와 협력을 통해서 국제 통화 협력을 촉진”하는 것이라고 명확하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65 년이 지난 지금, IMF 는 아시아의 경험을 활용하고 이 기관의 협력적 특성을 되살릴 매우 좋은 기회를 맞았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금년에 새 세계 경제 질서를 반영하고 IMF 에서 아시아의 발언권을 강화하기 위해 IMF 의 지배구조를

개혁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IMF는 이 기구에서 일하는 아시아인 스태프의 수를 증가시키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야 합니다.

그러나, 아시아 지역의 견해를 경청하기 위해서는 또한 아시아 회원국들과 교류하는 방법을 변경해야 합니다. IMF는 아시아의 경험으로부터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맞았으며, 이러한 예에는 금융 안전망을 개선하고 G-20 MAP를 기반으로 효과적인 동료 평가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옵션을 고려할 때 아시아의 경험을 반영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전세계는 세계적인 성장을 지속하는 것은 물론, 미래의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정책 메커니즘을 개발하기 위해 아시아의 지도력을 필요로 합니다.

저와 IMF의 동료들, 그리고 이 지역의 많은 저명한 전문가들(고위 정책입안자, 저명한 실업계 지도자, 금융 시장 전문가, 학자, 시민사회단체 등)들이 참여하는 [Daejeon](#)은 세계적인 경제 문제들을 아시아와 IMF가 협력하여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개발하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iMFDirect 가 2010년 7월 11일에 게시